헬기 강국을 위한 기반

KUH 후속헬기 개발

2009년 한 해, 항공산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형기동헬기인 KUH(Korean Utility Helicopter)수리온의 출고식이다. 지금까지 국내 운용 헬기는 해외에서 직구매하거나 국내에서 면허생산하는 수준이었지만, KUH가 개발되면서 마침내 헬기 국산화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헬기 개발은 이제부터 시작. KUH가 한국의 헬기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 후속 헬기 개발은 헬기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UH 후속헬기로 공격헬기를 비롯해 의무후송헬기, 상륙기동헬기, 해상작전용헬기, 관용헬기, 그리고 민수헬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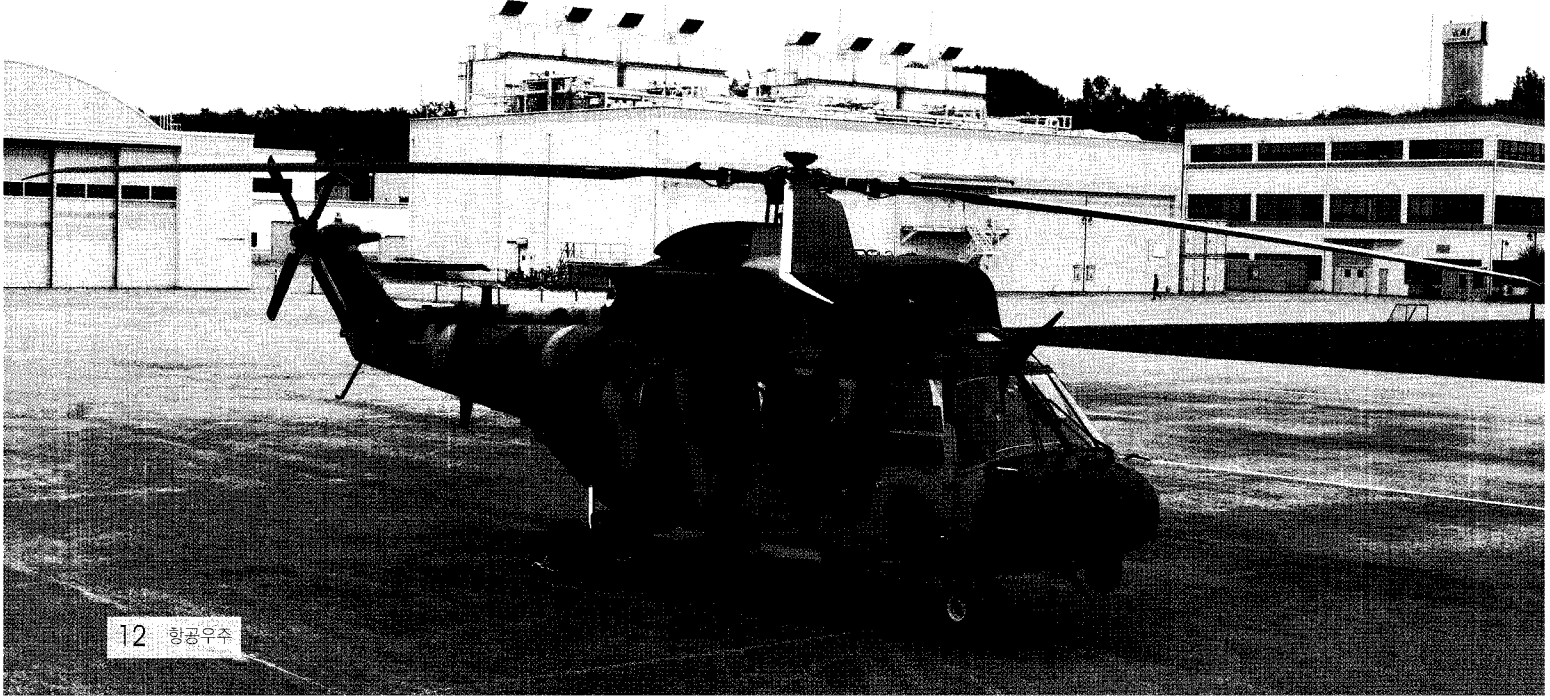
공격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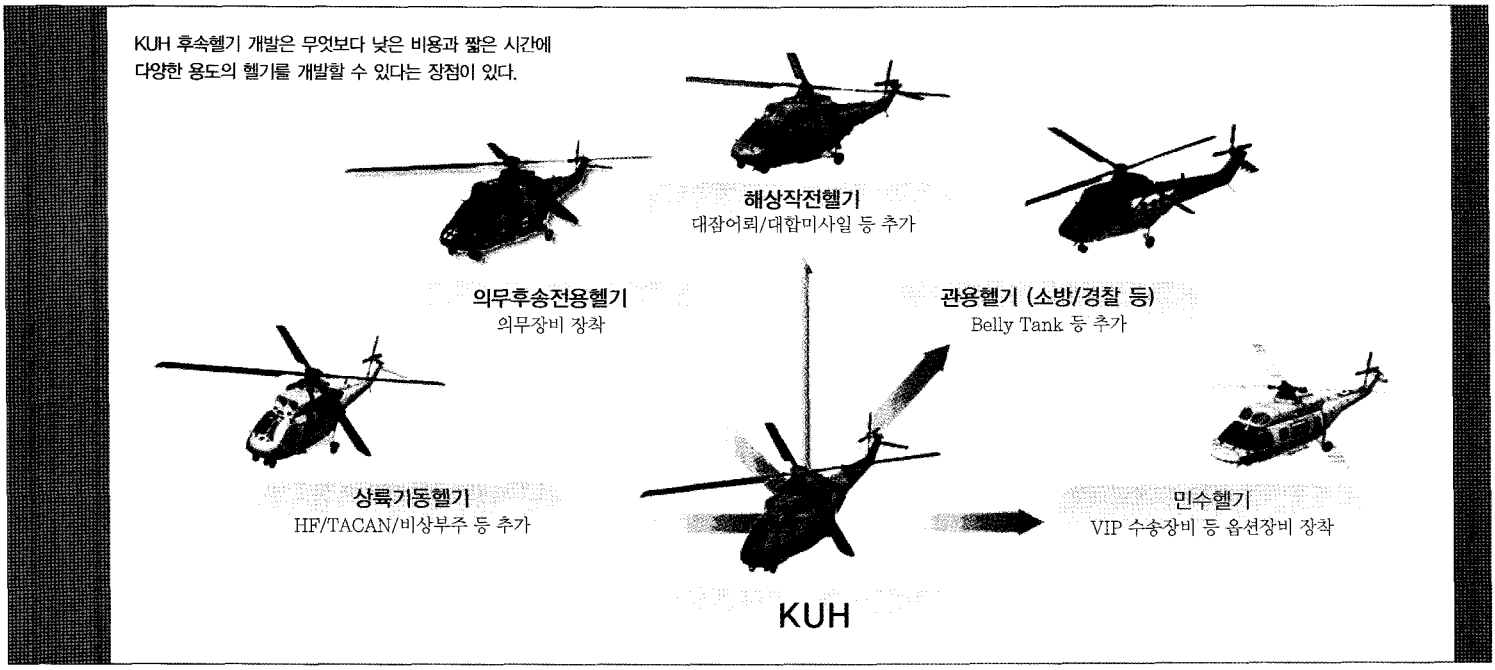
최근 가장 이슈화된 헬기는 아무래도 한국형 공격헬기(KAH). 최근까지 KAH 사업은 중고 아파치를 도입하는 AH-X 사업과 맞물리면서 찬반 논란이 지속됐고, 12월 현재까지도 2010년 국방예산에 탐색개발을 위한 예산 반영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KAH 사업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중고 아파치 36대를 도입하는 데 1조5천억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예상되며, 이는 올해 육군 26개 신규사업(9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예산"이라면서 "36대의 연간 유지비용이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고 아파치 헬기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매하려는 아파치 헬기는 80년대 중반에 생산된 노후헬기로 한국에는 동체 교체 없이 판매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30년 내구성도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중고 아파치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이미 도태가 시작되고 있는 공격헬기 전력의 시급한 보완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격헬기 연구개발 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AH로 검토되고 있는 개발방안은 2가지. KUH 기반으로 한 공격헬기 개발과 신규 소형공격헬기 개발이다. 이 중 KUH 기반 공격헬기 개발은 기존 KUH를 기반으로 전용공격형, 조종석 개조형, 그리고 무장형 등 3가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규 소형공격헬기 개발은 육군이 대형공격헬기를 해외로부터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사양인 소형급 공격헬기를 개발하는 방안이다.

의무후송헬기

한국형 공격헬기와 함께 KUH 후속헬기로 2009년 한 해 이슈화된 후속헬기는 의무후송헬기. 의무후송헬기(MEDEVAC, MEDical EVACuation)는 응급환자나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환자를 전문적인 의료시설에 신속하게 이송하는 헬기로, 군은 UH-60에 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무후송헬기 6대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헬기들은 의료장비를 임시로 탑재한 수준이어서 각종 의료장비들이 잘 갖춰진 전용헬기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그 수도 원활한 의무후송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무후송헬기 도입사업도 이러한 군의 미흡한 의무후송헬기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 KUH 기반에 산소공급장비, 의료용 흡인기 등 전문의료장비 등을 탑재, 이를 의무후송전용헬기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중순, 의무후송헬기 도입에 대한 비용대 효과분석이 끝난 가운데 중기계획에 총 8대의 의무후송헬기 도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무후송헬기는 국내 소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많아 향후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륙기동헬기

상륙기동헬기도 KUH 후속헬기로 검토되고 있다. 상륙기동헬기는 쉽게 말해 상륙전시 해병대원을 적 진지에 투입시키는 헬기. 해병대원을 공중으로 실어 나르는 만큼 하늘의 상륙돌격장갑차로 통한다. 특히 상륙기동헬기는 신속성이 강조되는 현대 상륙전에서 필수적인 전력이기도 하다. 현재 KUH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해군 상륙함과 연계,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KUH 기반으로 기체 방염처리, 비상 부주장치, 보조연료탱크 장착 등 해상용으로 개조 및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군 역시 신형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잠용 어뢰 및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KUH 기반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방안과 해외직구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수/관용 헬기

KUH 후속헬기는 공격, 의무후송, 상륙기동, 해상작전 등 군용헬기뿐만 아니라 민수/관용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민수/관용 후속헬기는 군용 장비가 제거된 KUH 기본형상에 고객이 원하는 임무에 맞춰 각종 장비가 장착된다. 예컨대 해양경찰용 모델에는 기체방염 및 비상부주 등이 옵션으로 장착되며, 산림청의 경우 벨리 탱크(Belly Tank) 등 화재진화장비가 옵션으로 장착된다. 그리고 일반 민수용에는 VIP 이송을 비롯해 물자후송과 같은 일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옵션이 장착된다.

KUH는 국제표준 민수규격 FAR29에 명시된 총 2,460개의 요구사항 중 96%를 충족해 민수헬기 개조개발 및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헬기 개발 가능

KUH 후속헬기 개발은 무엇보다 낮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다양한 용도의 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작사인 KAI에 따르면 수리온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부품은 90% 이상을 후속헬기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상륙기동헬기 96% 이상, 의무후송헬기 91% 이상 등), 특히 개발초기부터 민수헬기시장을 고려하여 개발된 KUH는 국제표준 민수규격 FAR29에 명시된 총 2,460개의 요구사항 중 96%(2,363개)를 충족해 민수헬기 개조개발 및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따라서 KUH를 기본으로 후속헬기를 개발하는 경우 국내 소요 확대를 통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외국산 헬기 수입대체를 통해 외화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과 더불어 고용창출을 통해 국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